해남군 장립종 쌀, AI농업기술 접목

기후변화 대응 AI 농업기술 시연회
농기계 자율주행·드론 기술 선보여
작업 데이터 축적 정밀 농업 구현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20일 장립종 벼 재배 연시회에서 자율주행을 시연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해외 수출용으로 조성하고 있는 장립종 쌀이 인공지능(AI) 농업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현산면 고현리 일대 장립종 벼 재배단지에서 농촌진흥청, 세종대학교, CJ제일제당, 농업인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AI 농업기술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율주행, 농림위성과 드론 기반 AI 분석기술을 선보였다.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사용하는 농기계에 자율주행 장치를 설치하고 직진부터 선회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작업 데이터를 축적·활용함으로써 정밀 농업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AI 분석기술은 농림위성과 드론을 기반으로 작황분석, 토양 모니터링 등으로 실시간 생육상태를 점검, 이를 토대로 AI 수확량 예측 모델까지 제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해남군은 매년 20만t 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밥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20㏊에 이어 올해는 22농가 100㏊까지 전문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장립종 전용 도정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첫 재배를 통해 장립종 전용 매뉴얼 활용, 맞춤형 재배 컨설팅으로 수량 10%를 증수하고 고품질 원료곡 120t을 수확했다.

장립종 쌀은 관내 학교 급식 원자재로 공급돼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출전용 쌀 제품을 제작해 세계 쌀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립종 벼는 태국, 인도 등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쌀알이 길쭉하고 가늘며 찰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세계 쌀 유통시장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안 푸드 확산과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구 증가로 해마다 10% 이상씩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해남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 13억여원을 투입하여 이상기상에 대비한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과 AI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이 기후변화 시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호우재해 24시간 대응체계…산사태 취약지 정비

피해 우려지역 90곳 현장조사

우리마을 정비 캠페인에 참여한 미암면 주민들이 우승희 영암군수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이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164개 재해 우려지역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산림재해 24시간 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영암군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 74곳을 정비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90곳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배수로 정비, 비상연락망 구축, 관련 기관 공조체계도 강화해 재난 발생 때 신속 대응 태세를 갖췄다.

군은 산사태 예·경보 발령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가구별 읍·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동시에 주민 방송, 대피 유도 등 정보전달 체계도 재정비했다.

여기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에 돌입하고, 산사태예방단 3인과 임도관리원 3인의 취약지 점검, 51개 대피소 안내 등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로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영영암군민도 비상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위험이 발생하면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청해진 유적 국가유산 지정 40주년 '장보고 위업과 정신 재조명' 기념 학술회의

26일부터 사흘간 생활문화센터

완도군이 청해진 유적의 국가유산 지정 40주년을 맞아 26일부터 사흘간 생활문화센터에서 '장보고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9세기의 장보고와 21세기의 장보고'를 주제로 열릴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인물이었던 장보고 대사의 위업과 정신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해진 유적은 장보고 대사가 9세기 중반 세운 해상 왕국의 거점이자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이다.

지난 1984년 9월 1일 국가유산(사적 제308호)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꾸준히 조명받아 왔다. 26일에는 학술회의 개회식과 함께 장보고의 역사적 역할과 청해진 유적의 현대적 가치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27일에는 '동아시아 해양 박물관과 장보고'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한, 중, 일 3국이 '동아시아 장보고 포럼(가칭)' 결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념행사에서는 창작 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공연과 강연 등이 이어진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장보고 대사는 한국 해양역사와 세계 교류사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면서 "학술회의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본향인 완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 문화 교류의 중심축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청소년·국가유공자 함께 호국 순례

고성중 66명 목포 현충시설 방문

진도군은 최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호국 순례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진도군보훈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7개 보훈단체 회원과 진도 고성중학교 학생 등 66명이 목포 현충공원과 근대역사관 등 현충 시설을 방문해 호국영령께 참배했다. 〈사진〉

호국 순례는 청소년들이 보훈 문화를 접하며 나라사랑 의식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조국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유산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해수청,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여객 증가·태풍·호우 집중 관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 증가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6~8월)은 태풍·호우 등 기상악화, 하계 휴가철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의 급증 및 성어기 조업일수 증가로 인해 해양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휴가철 기간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여객선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와 인명사고 등에 대비해 항만·부두시설 및 표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터미널과 국고 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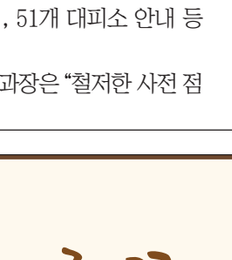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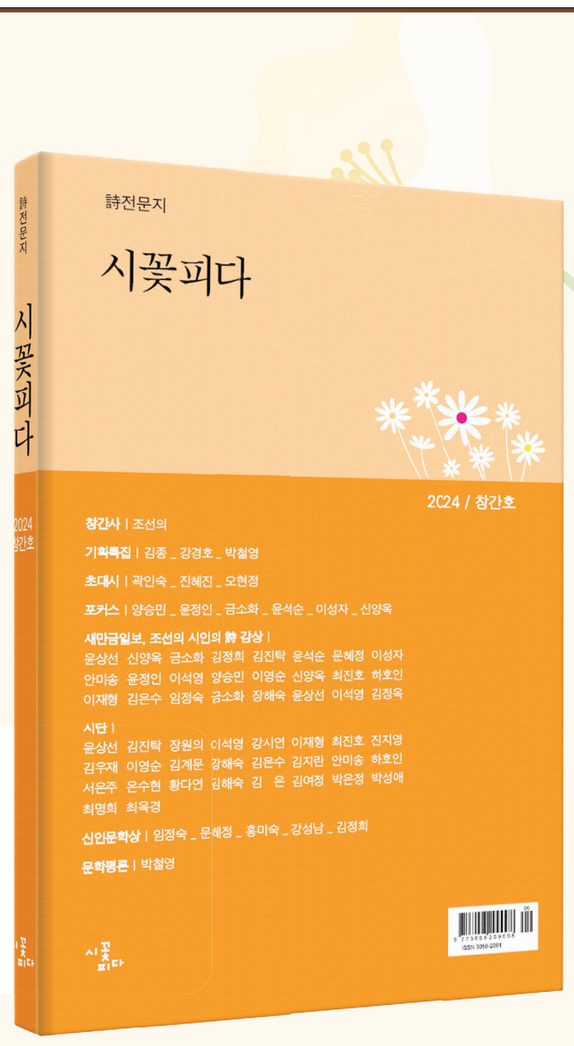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